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8. 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북아일랜드, 정보 청구 과정에서 경찰 정보 유출

- 8.9 북아일랜드 경찰청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응답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청구자 웹사이트에 경찰관과 직원 수천 명의 정보가 2시간 30분가량 노출됐다며, 이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
  - ※ '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으로 유혈사태는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경찰들은 반체제 세력의 총격 등 산발적 공격을 받고 있어 이번 유출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부언

미 주

○ 에콰도르 대선 후보, 무장괴한에 총격 피습

- 8.10 언론은 남미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「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」가 수도 키토에 있는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
  - ※ 同人 外 경찰관을 포함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, 사건 현장에서 폭발물도 발견돼 폭발물 제거반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

○ 美 일리노이州 대법원, 공격용 무기 금지법 '합헌' 결정

- 8.11 일리노이州 대법원은 지난 1월 돌격소총·대용량 탄창·급발사 장치 등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·판매·소지를 불법화한「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」이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
  - ※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계속 진행 중

○ 美, 알카에다 연계세력과 테러를 음모한 10대 미성년자 체포

- 8.14 외신은 알카에다 연계세력(KTJ)과 인스타그램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급조 폭발물 제조 용품을 구입하고, 테러 목표물 선정을 준비한 10대 미성년자를 FBI가 테러 음모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보도
  - ※ 美 사법당국은 용의자가 WhatsApp(모바일 메신저)에 테러단체 배너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추가로 발견, 혐의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인 재판 회부를 모색 中

중동

○ **ISIS, 매복공격으로 시리아 정부軍 수십명 살해**

- 8.12 언론은 지난 10일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州 마야딘 인근 도로에서 군용버스 2대가 공격을 받아 정부軍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으며, ISIS가 매복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  ※ 시리아인권관측소는 同공격이 금년 시리아 정부軍을 겨냥한 ISIS의 공격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부언

○ **이스라엘, 美-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동결자금 해제 맹비난**

- 8.12「네타냐후」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해 “핵기반 시설 해체가 빠진 합의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멈출 수 없으며, 이란의 후원을 받는 테러 그룹에 갈 돈만 지원하는 셈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
  ※ 이에 대해「블링컨」美 국무장관은 同 자금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 제한된 계좌로 송금될 것이라고 반박

○ **이란, 이슬람 성지 테러 가담자 체포**

- 8.14 이란 당국은 시라즈의 시아파 성지 샤체라크 영묘에 ISIS 연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침입 후 무차별 총격을 가해 신도 1명이 사망, 8명이 부상 당한 사건의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  ※ 파르스州지사는 同 사건과 관련해 “지난달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2명이 처형된 것에 대한 보복”이라며 ISIS연계 조직인 ‘타크피리’를 배후로 지목

아프리카

○ **나이지리아, 무장단체 공격으로 정부군 최소 26명 사망**

- 8.15 언론은 지난 13일 나이지리아 니제르州에서 무장단체 소탕 작전에 나선 정부군이 매복 공격을 받아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정부군의 반격으로 무장단체 대원도 50명 이상 사망했다고 보도
  ※ 나이지리아 서북부·중부에서는 ‘반디트’라는 무장단체가, 동북부에서는 보코하람, ISWAP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테러 감행 중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알카에다, 이라크 모술지역 인근 야지디족 겨냥 차량폭탄테러

○ '07.8.14, 이라크 '알 카타니야'와 '아드나니야' 마을에서 자살 차량폭탄테러로 400여명 사망 · 200여명 부상

- 4명의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트럭 4대에 약 2톤가량의 폭발물을 채워 테러를 자행

< 사건 현장 >

○ 이라크 내무부는 이라크전 勃發 이래 '최악의 차량폭탄테러' 라며 "이슬람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야지디교*를 겨냥했다"고 발표

*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10만여명이 거주, 쿠르드족에 속하지만 정통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과 이슬람, 조로아스터교 등이 혼합된 종교로 이단으로 간주

- 또한, "이라크 종파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同사건과 같은 소수종파들을 겨냥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"고 언급

○ 한편, 미군 등은 "알카에다 조직원이 사건 7일전 현장에서 야지디교는 반이슬람주의자라며, 공격 임박을 경고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다"며 同 테러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알 카에다(Al-Qaeda) >

■ **(목표·결성)** 全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'88년 결성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■ **(연계세력)**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랩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
■ **(활동지역)**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
■ **(주요테러)**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